

지역 매아리

정읍시보건소, '결핵예방의 날' 안심국가 실현 캠페인 실시

정읍시보건소가 '제9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내일 정읍우체국 광장과 시내 일대에서 결핵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결핵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모두의 동참'이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캠페인은 결핵 예방을 위한 기침예절 실천과 결핵검진의 필요성을 안내한다.

또 전염병예방 실천을 돕기 위한 57지 결핵예방 생활수칙도 홍보 할 예정이다.

결핵예방 생활수칙은 꾸준한 운동을 통한 자가 면역 향상과 균형 있는 영양섭취,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수시 주변 환기와 통풍,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이다. 결핵은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과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된다.

보건소는 폐결핵의 흔한 증상이 기침과 가래라서 감기약이나 진해제 등을 복용하다가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보건소는 2주 이상 기침과 발열, 식은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결핵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는 "전염성 환자를 빨리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가 끝까지 치료를 잘 받는 것이 결핵의 전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관내 기업유치와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군수는 전날(19일) 오후 송하진 지사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군수는 고창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건의했다.

또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조도 요청했다.

이어 도 기획조정실장과 도민안전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실국장들과 해양수산정책과, 산림복지과, 농촌활력과, 관광총괄과, 문화유산과, 자연재난과 등 주요 부서 과장 및 담당자들을 직접 찾아가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도 도로교통과장을 만난 자리에선 국도 22호선 시설개량사업을 비롯한 무장-상하 간 지방도 733호선 신설 관련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과 '진라북도 도로 건설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저녁에는 김승일 행정부시사와 만찬을 같이하고 도 소관의 국가예산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다시 중심지로 Re:born 정읍

정읍시, 공기업제안형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정읍시가 공기업 제안형 도시재생사업인 'Re:born 정읍, 해시태그(#)역(驛)'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와 공기업인 LH 전북본부(본부장 임정수)가 손잡고 노력한 끝에 선정된 이 사업은 민선 7기 유진섭 시장 취임 이후 대형 국가 공모방식으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도시재생 분야의 내로라하는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적 선정된 배경에는 제작년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된 이후에도 멈추지 않은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다. 이로써 정읍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원도심 재생과 역세권 주변정비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해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비 150억원과 도비 25억원, LH 157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22억 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메이플 슈퍼푸드 플랫폼을 설치하여 특화 농산물의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한다. 또 연지시장 환경개선과 특화거리 조성, 정읍한우와 다문화 음식 등을 특화업종으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직주근접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현 수성동주민센터와 공영 주차장에는 노후공공청사 복합 개발과 청년주거공간, 주민복지와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다.

간선도로의 녹색기능 제고와 생태 생활도로 개설, 청년커뮤니티 스페이스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더불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마을협동 체결과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읍시가 공기업 제안형 도시재생사업인 'Re:born 정읍, 해시태그(#)역(驛)'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도시심 내 방치된 빈 집과 폐공장을 활용한 작은 역사공원, 아트팩토리 플라자, 소셜믹스 문화센터, 정읍역 스테이션 등은 원도심의 역사·문화 보존과 세대별·계층별 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914년 호남선 철도 개통 이후 전북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던 정읍역 주변 정비와 연지시장 활성화 및 유희공간을 재생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화려했던 정읍의 옛 정경기를 다시 찾고 청년들의 활동 증대를 통해 젊음과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19일 수성동주민센터 2층에서 '공기업제안형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주민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공간으로 활용된다. 주민 간 의사전달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 발굴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매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시는 센터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써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진섭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며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계화면 대규모 축사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법원 상고심서 '이유 없음 명백' 기각... 부안군 손 들어줘

부안군은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일원 대규모 축사(돈사 등)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 2016년 7월 29일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전 지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 개정해 창북리와 계화리에 신청한 축사 15건(돈사 4건, 계사 10건, 우사 1건)에 대해 건축불허가처분을 했다. 그 중 9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

는 영향권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 심결처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해 지루한 법정공방이 끝났다.

권익형 부안군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돈사 등 대규모 축사가 단지화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사업은 적극 지원하면서도 환경보전은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인 만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는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임으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인 광주고법도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및 계화면 창북리와 계화리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이 새만금의 환경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부안=김석진 기자

공직자의 유연한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 높인다

정읍시, 공감도서 읽기 실시

정읍시가 시정 철화 공유와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결음을 내었다.

시는 공직자들의 유연한 사고를 키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감도서 읽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원들 간 소통을 확대하고 풍부한 지식과 감성을 지닌 공직자로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다. 협력적으로 시정을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기도 하다.

시는 분기별로 도서를 선정해 매월 초 해당 월 생일인 직원에게 공감도서를 선물한다. 독서후기를 서로 공유하고 소

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독서 후 함께 공감하고 싶은 내용을 적은 '공감의 글'을 수시로 접수해 연말에 20여명을 선정해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감도서는 김성환 작가의 답은 '나'였다이다. 작가가 여행과 글쓰기를 통해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유진섭 시장은 "이 작품을 통해 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이 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함께 여유를 갖길 바란다"며 "기존의 한편의 책 독서운동과 연계해 독서 문화를 지역 사회로 확산해 책 읽는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20일 고창군청 회의실에서 유기상 군수와 지역 체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생활권 공공스포츠클럽 창립총회'가 열렸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고창생활권 공공스포츠클럽 본격 출범

고창군민의 건강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고창생활권 공공스포츠클럽'이 본격 출범했다.

20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유기상 군수와 지역 체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생활권 공공스포츠클럽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번 창립총회에선 설립취지와 운영 방침, 임원 선임, 재산출연,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등을 의결하면서 공공스포츠클럽이 군민과 함께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초대회장으로는 오교만 고창군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부회장에 윤재성 테니스협회장과 정병필 배드민턴협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고창생활권 공공스포츠클럽은 앞으로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생활체육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된다.

또한, 학교체육과 연계해 청소년 건강증진, 우수선수 발굴 기여 등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오교만 초대 회장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지역스포츠클럽 출신의 선수가 은퇴 후에도 다시 스포츠클럽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생활권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지역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3년간 총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감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80  
www.gangsanwine.com